

전일동향

FOMC 경계감에...1,327.00원에 마감

27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23.10(15:30 기준)에서 1.90원 상승한 1,325.0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환율은 양방향 수급을 소화하며 좁은 레인지 장세를 보이다, 뉴욕장에서는 FOMC 경계감을 반영하며 소폭 상승해 1,327.0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6.2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39.45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25.00	1329.00	1322.80	1327.00	1324.30
	엔화	839.81	842.43	838.03	839.45	-
	유로화	1475.53	1482.00	1474.64	1475.08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13	-2.57	-6.58	-15.55
	결제환율(수입)	-0.04	-1.44	-4.6	-11.96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위험선호 심리에...1,32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0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23.70, 15:30 기준) 대비 3.70원 상승한 1,326.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FOMC 경계심리 및 강달러에도 수급 요인에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. 29일 새벽 예정된 미 FOMC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지만, 매파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유지되며 달러 강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. 여기에 미국 소비심리 지표가 예상외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를 지지하며 금일 환율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. 다만, 간밤 AI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나타난 뉴욕증시 상승은 위험선호에 따른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며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또한, 반도체 기업의 꾸준한 매도 대응 또한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20.75 ~ 1330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5612.3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7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2377.57, +15.99p(+0.03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89.1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623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